

사후가정사고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허 태 균†

한국의국어대학교

이미 일어난 사실과 다른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만약 ...다면, ...했을 텐데”와 같은 사고과정을 사후가정사고라 하며, 이러한 사고가 흔히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을 수반하고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와 후회경험의 긍정적 측면, 즉 인간의 동기에 부합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 역할을 지지하는 연구들을 통합하여 그 응용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후가정사고에서 가상상황이 현실의 사실보다 나올 때와 못할 때에 따라 각각 상향적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그 구조에 따라 첨가형과 삭제형 사후가정사고로 분류하였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후회, 실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반하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안도,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동반한다.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를 제안하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학자들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적 기능(부정적 감정의 완화와 긍정적 감정의 증대)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미래준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조절적 동기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항상적 동기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예방적 동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후가정사고와 후회의 경험이 반드시 통제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닌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적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의 다양한 현실사회에서의 응용 가치와 그 제한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후가정사고, 후회, 조절적 동기, 사회인지, 기능적 가치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 허태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30-790)
e-mail drtkhur@hufs.ac.kr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봉양하고자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往而不可追者年也 (흘러가면 쫓을 수 없는 것은 세월이요)

去而不見者親也 (나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어버이이시라)

風樹之歎(풍수지탄) - 後漢書(후한서)

“지나간 일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 나폴레옹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다”

“엎질러진 물이다”

“지나간 버스 손 흔들기”

위에서 언급된 한시와 명언 또는 속담들은 흔히 두 가지의 교훈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보통 특정 사건(특히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건을 미리 대비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라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이미 그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경우 교훈에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백해무익하므로 피하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 현실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부정적 사건의 결정요소들을 밝혀내고 예방한다는 궁극적 목적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보다는 일어나기 전의 과정에 더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해하려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이미 특정 사건(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인간의 정신과정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흔하며 자연스러운 생각이 “만약...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텐데”라는 생각이라고 제안하여 왔다(예, Goodman, 1983; Hofstadter, 1985), 이러한 생각은 후회와 같

은 매우 부정적인 정서(때론 필요 이상의)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심지어 신체건강과도 관련되어졌다(예, Jaffries & Konnert, 2002; Salovey, 2001; Stewart & Vandewater, 1999). 예를 들어, Stewart & Vandewater(1999)는 선택과 후회가 인생변화에서 동기로서의 역할과 심리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낮은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만약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텐데”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라고 한다. 이러한 가상의 상황에 대한 사고는,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법의 추론과 실현되지 않은 이상적 상황의 인식론적 접근을 언급하였을 정도로 일부 이기는 하지만 철학자들의 오랜 관심주제였다(Rescher, 1969). 가상 세계에 대한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의 연구들은 20세기에 들어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 실제 현실을 정의내리는 노력에서 논의되었다(Kvart, 1986). 20세기 후반에 들어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인지적 접근에서 시작되었다. 사후가정사고가 학습과 기억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예, Fillenbaum, 1974; Revlis & Hayes, 1972), 사고과정과 지식구조를 제한하는 언어적 표현의 역할(예, Bloom, 1984), 지적능력의 발달에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예, Sternberg & Gastel, 1989) 등이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인지적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들이었다.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접근과는 다소 다르게, 최근 들어 사회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후사정사고에 수반되는 주관적 경험과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사고의 사회적 환경에서의 기능적인 역할, 그리고 현실적 응용

가치에 심리학적 관심이 집중되어져 왔다(Roese, 1997).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후가정사고가 흔히 부정적 감정경험을 수반하고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Sherman & McConnell, 1995). 반면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가정사고가 궁극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되었고,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Roese, 1994). 본 논문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기존 연구들을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서의 응용 가치를 제안하려 한다. 첫째,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에서 제안되어온 사후가정사고의 정의와 다양한 분류 체계를 논의할 것이다. 둘째, 인간이 사후가정사고를 하게 되는 기본적 과정을 설명하는 사후가정사고 생성의 2단계 이론을 설명하고, 그 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생성된 사후가정사고가 정서 경험, 사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효과와 인과관계추론의 두 가지의 심리적 기제로 분석할 것이다. 넷째, 앞의 부분에서 논의된 사후가정사고의 생성과 영향의 과정이 기능적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부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 사후가정사고의 응용 연구들을 묘사하고 그 확대를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내용은 사후가정사고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제안을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사후가정사고의 정의와 분류

사후가정사고는 흔히 문법적으로는 “만약 ...한다면”에 해당하는 조건부분과 “...했을텐데 또는 ...할뻔 했다”라는 결과부분으로 구성되는 조건문

의 형태를 가진다. 모든 사후가정사고는 기본적으로 각 조건부분과 결과부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전환과정을 포함한다(Goodman, 1983).¹⁾ 예를 들어, 최근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의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후가정사고를 하게끔 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결과적 사건(4강 진출)이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그들의 관심을 끄는 한 선행사건-예를 들어, 히딩크의 국가대표 감독 영입-을 조건부에 넣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전환시켜고 (“만약 히딩크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았다면”), 결과적 사건을 따라서 전환시키는(“한국축구팀은 4강 진출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환성(mutability: 얼마나 쉽게 전환될 수 있는가)과 일어나지 않은 대안적 사건들의 잠재적 가능성(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후가정사고의 구조와 방향

사후가정사고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환 과정의 특성-구조와 방향-에

1) 사후가정사고의 형태를 띄지만, 조건문의 조건부분에서만 사실적 사건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결과 부분에서는 사실적 사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의 사고를 준가정사고(semifactual thinking)이라고 한다(Goodman, 1983).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조건부분이 “만약 ...했을텐데”의 구문이 아닌 “비록 ...했을지라도”의 형태를 띄게 된다. 예를 들어, “비록 히딩크가 감독이 아니었더라도, 한국 축구팀은 4강에 진출했을 것이다”와 같이 조건문의 변형이 결과문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준가정사고는 보통 사후가정사고와 같은 후회와 같은 감정정보보다 슬픔, 낙담, 자포자기와 같은 정서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따라 사후가정사고를 분류하고 그런 다른 종류의 사후가정사고가 가지는 역할에 관심을 가져왔다. 모든 사후가정사고는 기본적으로 조건부분의 전환 구조(counterfactual structure)에 따라서 **추가형**(additive)과 **삭제형**(subtractive) 사후가정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Kahneman & Tversky, 1982; Roese & Olson, 1993), 사후가정사고의 결과부분의 전환 방향(counterfactual direction)에 따라서 **상향적**(upward)과 **하향적**(downward) 사후가정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Markman, Gavanski, Sherman, & McMullen, 1993; McMullen, Markman, & Gavanski, 1995).

추가형 사후가정사고는 그 조건부분에서 사실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과거 또는 현재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또는 행위를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함으로써 일어날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때 살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사지 않았던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른 사실을 안 사람은 흔히 일어나지 않았던 주식구매를 조건부분에 추가하여 “그 주식을 샀다면, 아마 ...했을텐데” 라는 사후가정사고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삭제형 사후가정 사고는 그 조건부분의 전환가정에서 과거 또는 현재에 일어난 사건 또는 행위를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하여 만들어 낸 사후가정사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투자한 후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흔히 자신이 행하였던 주식구매를 조건부에서 삭제함으로써, “그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아마 ...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쉽게 할 것이다.

사후가정사고의 조건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조적 분류와는 독립적으로, 사후가정사고의 방향은 사후가정 조건문의 결과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조건부분에 특정 사건을 추가하던지 삭제하던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나서 사실이 된 사건(또는 현실의 상황)보다 더 주관적으로 좋게

평가되는 대안적 사건(또는 상황)을 상상하는 사후가정사고를 상향적으로 분류하며, 반대로 주관적으로 더 나쁘게 판단되는 대안적 사건(또는 상황)을 상상하는 생각을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라고 분류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잃은 사람은 “...했다면, 2000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었다” 라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했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라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할 수도 있다.

사후가정사고의 생성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사후가정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은 특정한 목적(예, 특정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상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 등등)을 가지고 대화 속에서 흔히 발견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타인의 질문에 의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유발된 사후가정사고보다 특정 사건을 경험한 후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상대적으로 자동적인 인지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사후가정사고에 더 관심을 가져왔다(Kahneman, 1995). 이렇게 자동적인 인지과정으로써의 사후가정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Roese(1997)는 사후가정사고과정을 독립된 활성화와 내용결정의 두 과정으로 분리하는 2단계이론을 제안하였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였다(예, Roese & Hur, 1997; Roese & Olson, 1997). 더 나아가 많은 실험 연구들이 자동적인 사후가정사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증하였다.

사후가정사고의 2 단계 이론

이미 일어난 사실적 사건을 가상의 상황 또는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사후가정 사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Roese(1997)는 사후가정 사고가 머리 속에 떠오를 때 두 가지의 인지적 단계를 거친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특정 사건을 경험한 후에 과연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상의 상황으로 변환시키는 인지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활성화(activation)** 단계인데, 사후가정조건문의 조건부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결과부분에 해당하는 일어난 사실적 사건을 전환시키는 “...했을텐데”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로써, 이는 사후가정사고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가정사고의 두 번째 단계는, 사후가정사고가 활성화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사실적 사건을 수많은 가능했던 사건들 중에 어떠한 가상적 사건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내용결정**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사후가정사고가 특정 사건의 발생 후에 그 최종 결과를 바꾸고자 하는 인지적 과정이므로, 사후가정 조건문의 결과부분 중에 전환될 가상의 상황이 결정되면 사후가정사고의 조건부분에서 전환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주식에서 거액을 잃은 사람이 “...했다면, 그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라는 사후가정사고를 완성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많은 선행되었던 사건들-예를 들어, 다른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가능성, 아예 주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미리 팔라는 친구의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 등-중에 하나 이상의 사건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그 사람이 “...했다면, 돈을 더 잃었을 것이다”라는 사후가정사고를 한다면 전혀 다른 수많은 선행사건들이 조건부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Roese(1997)가 제안한 2 단계이론의 활성화와 내용결정의 독립적 단계가설은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 일부 요인들이 주 단계중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Roese와 Hur(1997)는 일어난 사건의 결과(결과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나 여부)와 선행사건의 정상성(Normality)을 통제한 실험에서,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는 사건이 결과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었나 여부에 영향을 받고, 반면에 생성되는 사후가정사고에서 전환되는 내용은 선행사건의 정상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경로분석을 통하여, 사건 결과에 대한 주관적 경험(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사건결과의 긍정/부정 여부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Davis Lehman, Wortman, & Ellard, 1995; Roese & Olson, 1997).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전환성과 관련되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상호연관성과 다른 요인들을 다음 단락에서 논의할 것이다.

사후가정사고에 미치는 요인들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든 다른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과 같이 동기 “하러하는가?”와 능력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활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특정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하는 능력적인 측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도 사후가정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적 요인-경험된 사건의 긍정/부정성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사후가정사고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이고, 대부분의 요인들은 전환성(mutability)과 관련되어 있다. 전환성은 현실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때 가능했던 대안적 사건으로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담배불에 의한 산불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등산객이 담배불만 버리지 않았으면, 그런 산불에 의한 큰 피해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면, 그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기 중의 산소가 있다는 사실은 등산객의 담배불보다 훨씬 낮은 전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Kahneman & Miller, 1986; Rescher, 1964). 최근의 연구들은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 사실적 사건의 정상성, 통제가능성 등의 요소들이 전환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경험된 사건의 긍정/부정성과 정서적 경험

사후가정사고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즉, 그 결과를 이미 경험한 후에) 형성됨으로,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어난 사실적 사건의 긍정/부정성 여부이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사실적 사건의 긍정/부정성 여부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후보다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가 생성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Klauer & Migulla, 1995; Roese & Hur, 1997; Roese & Olson, 1997; Sanna & Turley, 1996). 예를 들어, Roese와 Hur(1997)는 긍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이용한 간접 경험과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의 직접적 경험을 유도하고, 자기보고식 생각목록 작성과 반응시간 측정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간접적 또는 직접적 경

험 모두에서 부정적 결과 이후에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를 보고하였으며, 사후가정사고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더 나아가 단지 부정적 사건 자체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소인 것을 밝혀냈다(Davis et al., 1995; Roese & Hur, 1997). Davis와 동료들은 매우 불행한 일(예, 가족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불행한 사건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3주 후에 측정된 부정적 정서가 15개월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사후가정사고의 빈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Roese와 Hur(1997)는 경로분석을 통해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결과의 긍정/부정성 여부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간에 매개변인 역할을 함을 밝혀냈다.

사건의 긍정/부정성 여부가 단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 사후가정 사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Markman, Gavanski, Sherman, & McMullen, 1993; Roese & Olson, 1995). Markman과 동료들(1993)이 컴퓨터 도박 게임동안 실험참가자들이 보고하는 생각들을 녹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가 긍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보다 많이 보고되었고,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보다 긍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

대안적 사고의 근접성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적 사건이 얼마나 대안적 사건과 가까웠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전환성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지각하는 일어난 사실적 사건의 전환성(얼마나 대안적 사건으로 바뀌기 쉬운가)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비행기 이륙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을 때보다 단지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 비행기를 놓친 사실적 사건과 놓치지 않은 가상의 대안적 사건은 더 가깝다. 이러한 높은 근접성은 사실적 사건의 전환성이 높게 지각되게 한다. 실제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연구들은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예, Johnson, 1986; Roese & Olson, 1996; Kahneman & Varey, 1990; Meyers-Levy & Maheswaren, 1992).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언급된 비행기를 1분 또는 2시간차이로 놓친 상황, 화재보험가입을 하기 3일전과 6개월 전에 일어난 화재사건과 같은 시간적인 근접성을 다양하게 통제된 실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의 생존자가 거의 마을까지 다 와서 죽었을 때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근접성을 공간적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사후가정사고와 뒤따르는 후회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사건의 정상성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들의 가장 관심을 끌여온 요인은 선행사건의 정상성이다. 초기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정상성(Normality)을 과거의 자신의 행동성향 또는 예상되었던 결과와 일치하느냐 아니냐 여부로 정의하여, 이러한 정상성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즉, 경험한 사실적 사건이 정상적일 때보다 비정상적일 때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가 생성된다는 것이다(Kahneman & Miller 1986). 이러한 제안은 일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Kahneman & Tversky, 1982; Sanna & Turley,

1996). 예를 들어 Sanna와 Turley(1996)는 경험된 사건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치되었을 때에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가 생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정상성이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예, Klauer & Migulla, 1995).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선행사건의 정상성과 사건결과의 기대일치도가 개념적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oese & Hur, 1997).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는가에 해당하는 것(기대일치도)은 일어난 사건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가정사고의 결과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 사후가정사고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기대일치도를 통제하였다(Sanna와 Turley, 1996). 반면에 정상성은 결과적 사건의 선행사건(보통 행동)이 평소에 일어났던 사건(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후가정조건문의 조건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과거의 사건성향과 다른 사건)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건보다 더 전환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 사후가정 사고에 더 쉽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uck & Miller, 1994; Kahneman & Miller, 1986; Wells, Taylor, & Turtle, 1987). 구체적인 예로서, 항상 사용하는 길을 이용했을 때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길을 이용하여 공항에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비행기를 놓쳤을 때, 사후가정 사고에서 길 선택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더 많이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Roese와 Hur(1997)는 기대일치도와 정상성을 독립적으로 통제하여, 전자는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와 후자는 사후가정사고의 내용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정상성에 대한 사후가정사고의 연구들

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주로 서구문화에서 행해진 기존의 연구들은 정상성의 개념을 조작화할 때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과거행동성향과 일치하는가(개인적 정상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많은 문화비교 연구들은 서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 동양문화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Marc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0),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문화간 심리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제안되었다(예,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2). Hur와 Roese(1998)과 허태균과 한성열(2000)의 연구들은 이러한 정상성의 판단이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제안하고, 정상성의 개념을 한 사람의 행동이 타인들의 행동과 일치하는가(집단적 정상성)로 확대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정상성이 사후가정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과거행동과의 일치성이 정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집단(준거 집단)의 행동과의 일치성이 정상성의 기준이었다.

사후가정사고의 기제와 영향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일단 생성된 사후가정사고는 뒤따르는 정서적 경험 (Medvec, Maday, & Gilovich, 1995; Landman, 1995), 기대와 예측(Olson, Roese, & Zanna, 1996), 태도와 의도(Roese, 1994; Gleicher et al., 1995), 책임과 처벌, 보상 등과 관련된 사회적 판단(Nario-Redmond & Branscombe, 1996; Wells & Gavanski, 1989)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Roese(1997)는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의 영향들이 기본적으로 대비효과와 인과관계추론의 두 가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대비효과(contrast effect)**는 특정 기준 또는 배경이 뚜렷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더 극단적인 정서적인 반응과 사회적 판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컵속의 따뜻한 커피는 평소 때보다 얼음물의 컵을 만진 후에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에, 사후가정사고는 조건문의 의미와 형태를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추론(causal inference)**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사후가정사고에서는 조건부에서 특정 선행사건의 전환이 결과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거액을 잃은 투자가가 “친구가 그 주식을 권하지만 았았다면, 돈을 잃지 았았을 텐데”라는 사후가정사고는 사실 이건 아니건 친구의 권고가 투자실패를 일으킨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내포한다(Hart & Honore, 1985).

사후가정사고와 대비효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판단은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일어나지 았았던 대안적 사건이 뚜렷하게 됨으로써 대비효과를 가져온다(McMullen, 1997; Roese, 1997). 즉, 상향식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가능했던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이 뚜렷해지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하향식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가능했던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이 뚜렷해지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비효과는 상향식 사후가정사고가 후회, 슬픔,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고, 하향식 사후가정사고는 안도, 만족,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이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Markman, Gavanski, Sherman, & McMullen, 1993; Medvec, Madey, & Gilovich, 1995; Roese, 1994). 예를 들어, Medvec, Meday와 Gilovich (1995)는 올림픽 메달 수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은메달 수상자가 동메달 수상자보다 만족도가 낮고, 강한 후회를 경험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은메달 수상자는 자신이 금메달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는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많이 하고, 동메달 수상자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비효과는 또한 동정심, 죄의식,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사후가정사고의 영향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Miller와 McFarland(1986)는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보상과 같은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 연구에서,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피해자가 거의 구조 될 수 있었을 때에 구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주도록 결정하였다. 즉, 구조될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가 가능했고 피해자가 구조되었던 상황이 뚜렷해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큰 동정심을 유발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후가정사고가 대비효과를 통해 정서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Nario-Redmond & Branscombe, 1996).

사후가정사고와 인과관계추론

사후가정사고에 내포된 인과관계추론의 기제를 통한 심리적 영향은 대표적으로 Wells와 Gavanski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다. Wells와 Gavanski(1989)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전환성이 있는 경우

와 전혀 없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통해 사후가정 사고가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은 특별한 와인에 대해 열러지를 가진 한 직장인이 식당에서 상사가 시킨 음식(그 와인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건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사가 잠시 고려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음식에 그 와인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의 높은 전환성의 시나리오를 읽었다. 반면에 나머지 실험참가자는 상사가 선택하지 않은 그 음식에도 같은 와인이 들어있어서 전환성이 없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나중에 전환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읽은 실험참가자들이 전환성이 낮은 시나리오를 읽은 실험참가자들보다 그 직장인의 죽음에 대해 음식을 고른 상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람들은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부정적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선행행동과 그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강조되어 그 선행행동에 더 강한 책임 또는 처벌을 부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과관계추론에 의한 사후가정사고의 영향은 강간피해자에 대한 동정, 범죄자에 대한 비난과 판결 등의 영역에서도 검증되었다(Branscombe & Weire, 1992; Macrae, 1992; Nario-Redmond & Branscombe, 1996).

사후과정사고가 인과관계추론을 통해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경험에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판단과 관련된 책임감 또는 죄책감, 동정심 등에서 잘 나타난다(Gilovich & Medvec, 1995; Landman, 1995; 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 하지만, 사후가정사고의 인과관계추론 기제는 사후가정사고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효과와 반대되는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Boninger, Gleicher, & Strathman, 1994; McMullen, 1997). 동화효과는 사후가정사고에 상상한 가상의 대안적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일으킴으로써, 대비효과와 반대로 오히려 가상의 사건과 일치하는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본 투자가 사후가정사고를 통해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과거의 대안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비효과에 의해 강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일어나지만, 그 투자가 인과관계추론을 통해 투자실패를 이끈 원인이 명확해지고 미래의 투자에 초점을 맞출 때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미래와 과거에 대한 일시적 주의와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 (Boninger, Gleicher, & Strathman, 1994; Gleicher et al., 1995; McMullen, 1997).

사후가정 사고의 기능적 가치

“사후가정사고와 그에 따른 결과(예, 후회의 경험)는 궁극적으로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앞의 질문은 사후가정사고가 인간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결국 손해가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자동화된 인지과정인가의 의문을 내포한다. 위에서 논의된 사후가정사고의 결정요인과 영향은 ‘왜 사후가정사고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사후가정사고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의 경험 이후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유기체에게 문제나 위협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을 하며 유기체를 대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된다(Schwarz, 1990; Taylor, 1991). 즉 사후가정사고가 인간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

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후가정사고를 기능적 가치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왔다(Roese, 1994). 구체적으로, 정서적 기능과 미래준비적 기능이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기능으로 제안되어져 왔다.

정서적 기능과 미래준비적 기능

정서적 기능(affective function)은 현실의 사실적 사건보다 더 나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하여 대비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서 천만원을 잃은 사람이 이천만원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통해 투자손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서적 기능은 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수많은 연구들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슬픔, 후회, 또는 분노 등의 나쁜 감정들을 완화시키고, 기쁨, 만족, 또는 안도 등의 좋은 감정들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McMullen, 1997; Medvec, Medey, & Gilovosh., 1995; Markman et al., 1993).

이러한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의 감정 상승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보다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oese & Hur, 1997; Roese & Olson, 1997). 이러한 결과들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더 강화시킨다는 대비효과에 근거한 정서적 기능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정서적 기능을 능가하는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Roese(1994)는 근본적으로 사건들에 관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causal inference)를 내포하고 있는 사후가정 사고가 **미래준비적 기능**

(preparation function)을 지니고 있음을 제안했다. 즉,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인과관계추론 기제를 통해 더 나은 상황 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또는 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른 후, “만약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시험을 더 잘 봤을 텐데...”라는 생각은 다가오는 시험을 더 잘 준비하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 미래의 성공 확률을 증가시킨다. 사후가정사고가 긍정적 사건보다도 부정적 사건이 경험되었을 때 더 많이 보고된다는 연구 결과들 또한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의 미래준비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Roese & Hur, 1997; Sanna & Turley, 1996).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사람이 그 순간 가지고 있는 동기-감정상승적 또는 미래준비적 동기에 따라서 상향적 또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즉, Markman와 동료들(1993)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유사한 과제가 다시 주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더 이상의 유사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에 개입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후자의 상황에서 전자의 상황보다 더 많은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상황적으로 유발된 목적(또는 동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류의 사후가정사고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미래준비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가 미래의 성공(더 나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태도 또는 의지를 형성하고(Gleicher et al., 1995; Roese, 1994), 실제로 미래의 비슷한 상황에서 수행 결과(또는 상황)를

향상시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Boninger, Gleicher, Strathman, 1994; Roese, 1994). Roese(1994)는 실험참가자들에게 개인적인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떠올리거나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그 순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한 후에, 상향적 또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요구한 다음 그들의 관련된 태도와 의도를 측정하였고, 뒤따르는 유사한 컴퓨터 게임에서의 실제 수행결과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한 실험참가자들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한 실험참가자들보다 성공과 관련되어서 더 강한 태도와 의도를 보고하였으며, 실제 수행결과도 더 많이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실험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은 사후가정사고의 내용과 행동적인 변화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후가정사고의 미래준비적 기능을 확인하였다.

사후가정사고와 조절적 동기

위에서 논의된 사후가정 사고의 정서적 기능과 미래준비적 기능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와 행동을 설명할 때,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고 제안하는 쾌락주의 원리(the hedonic principle)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Higgins (1997)는 조절초점 이론(theory of regulatory focus)에서, 인간의 동기는 쾌락주의 원리와는 독립적으로, 조절동기적 관점에 따라서 **향상동기**(promotion)와 **예방동기**(prevention)로 나뉘어진다고 제안하였다. 향상동기는 만족스럽거나 또는 바라던 결과(혹은 상태)를 얻으려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상태이다(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 또는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목표). 예방동기는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원치 않는 결과(혹은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

표를 지닌 상태이다(예를 들어, 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목표 또는 돈을 잃지 않으려는 목표)(Crow & Higgins, 1997; Shah, Higgins, & Friedman, 1998).

이러한 조절적 동기 이론은 사후가정 사고에 관한 기능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특히, 다른 종류의 사후가정 사고(상향적 과하향적)가 각기 다른 종류의 동기들(미래준비적 과 감정상승적)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조절적 동기 관점에서 제안된 항상동기와 예방동기도 다른 종류의 사후가정 사고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Roese, Hur, 와 Pennington (1999)은 추가형 사후가정 사고는 항상동기와 관련되고, 삭제형 사후가정 사고는 예방동기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항상동기를 내포한 상황에서의 실패경험과 즐거움-낙담 감정경험에서 추가형 사후가정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었으며, 예방동기를 내포한 상황에서의 실패경험과 안정-동요 감정 경험에서 삭제형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지적 상응성의 원칙(correspondence principle)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항상동기에서의 실패는 원하는 결과가 없음을 의미하며, 상상 속에서 그 결과의 있음을 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조건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형 사후가정사고를 하게된다. 반면에, 예방동기에서의 실패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상상 속에서 그 결과의 없음을 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일어난 조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삭제형 사후가정사고를 하게된다. 또한, 허태균(2001)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의 사실보다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가정적 사고는 항상동기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고, 사실보다 더 나쁜 상황을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적 사고는 예방동기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 있다는 기능적 관점을 검증하였다. 구체

적으로,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예방적 동기에 서만 발견된다는 연구결과와 사실적 사건의 긍정/부정서 여부가 조절적 동기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보고하였다. 즉, 예방동기가 아닌 항상동기를 지니고 있을 때만, 사람들은 성공(긍정적) 경험 후보다 실패(부정적) 경험 후에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후가정사고가 궁극적인 쾌락주의적인 동기뿐만이 아니라 세분화된 구체적 동기에 의해 다르게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후가정사고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궁극적으로 득이 되는 적극적 인지활동 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논 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들이 미래의 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사후가정사고의 연구들은 통합하여 봄으로써 확인되었다. 즉,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인간이 사후가정사고를 하게끔 하는 환경적 요소들과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결과적인 심리적 현상들을 규명하려 노력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거시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상황적인 요구에 의해 인간이 동기화 되었을 때, 사후가정사고가 당면한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적인 인지과정이라는 제안을 지지한다(Roese, 1997). 사후가정사고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기대했던 사건보다는 부정적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더 많이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사후가정사고의 전환 내용은 각 사건의 전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과관계의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그러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과정에 개입한다는 형상들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동기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가 다름이 발견되었다. 즉, 정서적 완화가 최우선 동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많이 생성되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미래에 일어날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때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세분화된 조절적 동기이론에 근거한 향상적 동기와 예방적 동기를 구분한 연구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향상적 동기와 관련이 있고,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예방적 동기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일부 연구는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실제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태도와 행동의도를 변화시키며, 후의 유사한 상황에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후가정사고가 궁극적으로 그 순간에 활성화된 동기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사후가정사고는 부분적으로 심리적 손실(부정적 감정의 경험)을 수반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결과는 순이익이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언급된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접근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과정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확장을 제시한다.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인지적 요소 또는 과정(태도, 고정관념 등)의 가치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기능을 강조하며 행동(사건)의 선행 조건으로써 많은 연구가 되었고 -예를 들어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행동(사건) 이후에 관심은 정서적 연구에 중심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귀인과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사건이 일어난 후의 인간의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한 귀인과과정의 결과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는 이러한 일방향적이고 단편적인 인지와 행동간의 인과관계에서 상호적이고 영속적인 인과관계의 순환으로 확대를 제안한다. 즉, 어떤 행동 또는 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심리적 상황적 요인만을 연구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수반되는 심리적 과정의 이해로 확대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순환성은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종의 동물들에 비해 인간의 뛰어난 인간의 학습 능력은 사후가정사고와 같은 특정 사건의 경험 후에 개입되는 고등정신과정의 산물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이 사후가정사고의 전환내용과 실제 행동변화간의 일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제한적 상황에서만 검증된 것이지만 이러한 행동변화가 향상된 과제 수행이나 더 나은 상황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Hur, 1999; Roese, 1994). 최근의 응용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가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적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사후가정사고의 응용적 가치

사후가정사고의 응용적 가치는 행동선택의 상황에서 사후가정사고가 특정 행동 성향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확인되고 있다. 즉,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접근은 교육(Gleicher et al., 1995),

소비자 행동(Cooke, Meyvis, & Schwartz, 2001), 건강 관련 행동(Richard & Van der Pligt, & De Vries, 1995 & 1996), 납세 또는 준법행동(Kelsey & Schepanski, 1991)과 같이 행동 교정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연구를 촉발시켰다. 특히 특정 행동이 지각되는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많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행동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leicher와 동료들(1995)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태도와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후가정사고가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AIDS예방을 위해 콘돔의 사용을 권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한 연구에서, AIDS와 콘돔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끝난 후에 일부 교육생들에게 만약 AIDS에 걸렸을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하며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예를 들어, “만약 내가 콘돔을 사용했다면, AIDS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후에 콘돔 사용 또는 전반적인 안전한 성생활에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도를 측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를 경험했던 교육생들이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의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후회 경험은 건강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수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반복하여 보고되었다(Richard & Van der Pligt, & De Vries, 1995 & 1996).

아직 일어나지 않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건에 대한 사후가정사고를 하고 수반되는 후회의 경험을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예상되는 후회’라고 하고,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Bell, 1982; Janis & Mann, 1977).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이러한 ‘예상되는’ 인지적

또는 정서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실험 참가자들을 실제 상황에서 연구할 수 없는 심리학적 연구의 윤리적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후회는 특히 소비자 행동과 관련되어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인 행동교정 또는 유발 기법이라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후회의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것이 구매시간의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어 그 영향이 효용극대화(expected value maximization)의 원리를 초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Cooke, Meyvis, & Schwartz, 2001). 즉, 구매상황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후회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구매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기며, 심지어 즉각적인 구매가 최대의 이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매결정을 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행동 개입 전에 기대×가치 이론에 근거해서 계산되는 특정 행동의 효용가치보다 행동 이후에 경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와 감정의 경험이 복권구입 또는 도박, 부적절한 주식투자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비논리적인 행동을 근거하는 심리적 기제이며(Landman & Petty, 2000), 이러한 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보다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 관점의 한계

본 논문이 기본적으로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사후가정사고가 항상 궁극적으로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일부 연구들은 사후가정사고가 기능적이지 못한 상황

을 밝혀내고 있다(예, Baron, 1999; Hur, 1999; Medvec, Madey, & Gilovich, 1995; Sherman & McConnell, 1995). Sherman과 McConnell(1995)은 사후가정사고가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제를 대비효과와 인과관계추론에서 설명하였다. 즉, 대비효과가 지나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인과관계추론은 이후의 유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oese & Olson, 1993). 앞에서 설명되었던 Medvec, Madey과 Gilovich(1995)의 연구에서, 올림픽은메달 수상자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더 부정적인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객관적인 그들의 성취보다는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후가정사고를 생성할 때, 전환되는 사실적 사건과 가상의 사건들은 정상성, 통제 가능성, 근접성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정교한 논리적 근거보다는 다양한 인지적 방략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73). 따라서 실제로는 사건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면서도 사후가정사고가 수반하는 인과관계추론 기제에 의해 잘못된 인과관계가 지각될 수 있다. 실제로, Hur(1999, 연구 3)은 반복된 컴퓨터 게임(매우 복잡한 과제를 포함)에서 사후가정사고 후에 게임의 수행결과가 오히려 나빠졌음을 발견하였고, 동시에 사후가정사고의 인과관계와 뒤따르는 게임에서 행동성향의 변화가 관련이 있었음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후가정사고가 행동선택과 수행결과간의 잘못된 인과관계를 암시하고, 그 인과관계와 일관되게 수정한 행동성향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연구는 사후가정사고를 많이 하고 적

게 하는 인지적 성향이 벤처사업과 같은 특정한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한다(Baron, 1999). 이러한 사후가정사고의 역기능적 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 현실세계에 응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일부분의 연구들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인 가치를 제안한다는 것은 유효하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만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 윈스턴 처칠

참고문헌

-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2). 사회적 범주과정에서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25-44.
- 허태균 (2001).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서 조절적 동기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59-171.
- 허태균, 한성열 (200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주관적 규범에서 참조집단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ron, R. A. (1999). Counterfactual thinking and venture formation: The potential effects of thinking about "what might have bee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79-91.
- Bell, D. E. (1982). Regret in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Operations Research*, 21, 961-981.
- Bloom, A. H. (1984). Caution-the words you use may

- affect what you say: A response to Terry Kit-Fong Au's "Chinese and English counterfactuals": The Sapir-Whorf hypothesis revisited." *Cognition*, 17, 275-287.
- Boninger, D. S., Gleicher, F., & Strathman, A. (1994). Counterfactual thinking: What might have been to what may b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97-307.
- Branscombe, N. R., & Weir, J. A. (1992). Resistance as stereotype-inconsistency: Consequences for judgments of rape victi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80-102.
- Buck, M. L., & Miller, D. T. (1994). Reactions to incongruous negative life events. *Social Justice Research*, 7, 29-46.
- Cooke, A. D. J., Meyvis, T., & Schwartz, A. (2001). Avoiding future regret in purchase-timing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447-459.
-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al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 117-132.
- Davis, C. G., Lehman, D. R., Wortman, C. B., & Ellard, J. H. (1995). The undoing of traumatic life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09-124.
- Fillenbaum, S. (1974). Information amplified: Memory for counterfactual conditiona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2, 44-49.
- Gilovich, T., & Medvec, V. H. (1995). The experience of regret: What, when, and why. *Psychological Review*, 102, 379-395.
- Gleicher, F., Boninger, D., Strathman, A., Armor, D., Hett, J., & Ahn, M. (1995).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The impact of counterfactual thinking on affect, attitudes, and behavior. In N. J. Roese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283-304). Mahwah, NJ: Erlbaum
- Goodman, N. (1983). *Fact, fiction, and forecast* (4th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ofstadter, D. R. (1985). *Metamagical themes: Questing for the essence of mind and pattern*. New York: Basic Books.
- Hur, T. (1999). *Counterfactual thinking and regulatory focus: Upward versus downward counterfactuals and Promotion versus preven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Illinois. USA.
- Hur, T., & Roese, N. J. (1998 June). Norm theory: Effects of intrapersonal vs. interpersonal norms on regret.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convention, Washington, D. C.
- Janis, I. L., & Mann, L. (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 Jeffries, S., & Konnert, C. (2002). Regre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childless women and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 89-106.
- Johnson, J. T. (1986). The knowledge of what might have been: Affective and attributional consequences of near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51-62.
- Kahneman, D. (1995). Varieties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N. J. ROese & J. M. Olson (Eds),

-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375-396). Mahwah, NJ: Erlbaum.
- Kahneman, D., & Miller, D. T. (1986). Norm theory: Comparing reality to its alternatives. *Psychological Review*, 93, 136-153.
- Kahneman, D., & Tversky, A. (1982). The simulation heuristic. In D. Kahneman, P. Slovic, & A. Tversky (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pp. 201-20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eman, D., & Varey, C. A. (1990). Propensities and counterfactuals: The loser that almost w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01-1110.
- Kelsey, D., & Schepanski, A. (1991). Regret and Disappointment in Taxpayer reporting decision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4, 33-53.
- Kvart, I. (1986). *A theory of counterfactuals*. Indianapolis, IN: Hackett.
- Landman, J. (1983). *Regre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andman, J. (1995). Through a glass darkly: Worldviews, counterfactual thoughts, and emotion. In N. J. Roesch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233-258). Mahwah, NJ: Erlbaum.
- Landman, J. & Petty, R. (2000). "It could have been you": How state exploit counterfactual thinking to market lotteries. *Psychology & Marketing*, 17, 299-321.
- Macrae, C. n. (1992). A tale of two curries: Counterfactual thinking and accident-related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84-87.
- Markman, K. D., Gavanski, I., Sherman, S. J., & McMullen, M. N. (1993). The mental simulation of better and worse possible worl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7-109.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Mullen, M. N. (1997). Affective contrast and assimilation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77-100.
- McMullen, M. N., Markman, K. D., & Gavanski, I. (1995). Living in neither the best nor worst world of all possible world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upward and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In N. J. Roesch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133-167). Mahwah, NJ: Erlbaum.
- Medvec, V. H., Meday, S. F., & Gilovich, T. (1995). When less is mor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satisfaction among Olympic athle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03-610.
- Medvec, V. H., & Savitsky, K. (1997). When doing better means feeling worse: The effects of categorical cutoff points 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84-1296.
- Meyers-Levy, J., & Maheswaran, D. (1992). When timing matters: The influence of temporal distance on consumers' affective and persuasive respon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424-433.

- Miller, D. T., & McFarland, C. (1986). Counterfactual thinking and victim compensation: A test of norm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513-519.
- Nario-Redmond, M. R., & Branscombe, N. R. (1996). It could have been better or it might have been worse: Implications for blame assignment in rape cas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347-366.
- Niedenthal, P. M., Tangney, J. P., & Gava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hadn't":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85-595.
- Olson, J. M., Roese, N. J., & Zanna, M. P. (1996). Expectancies.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211-238). New York: Guilford.
- Rescher, N. (1969). *Essays in philosophical analysi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Revlis, R., & Hayes, J. R. (1972). The primacy of generalities in hypothetical reasoning. *Cognitive Psychology*, 3, 268-290.
- Roese, N. J. (1994). The functional basis of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05-818.
- Roese, N. J. (1997). Counterfactu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 133-148.
- Roese, N. J., & Hur, T. (1997). Affective determinan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Social Cognition*, 15, 333-350.
- Roese, N. J., Hur, T., & Pennington, G. (1999). Counterfactual thinking and regulatory focus: Implication for action versus inaction and sufficiency versus neces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109-1120.
- Roese, N. J., & Olson, J. M. (1993). The structure of counterfactual though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312-319.
- Roese, N. J., & Olson, J. M. (1995). Outcome controllability and counterfactual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620-628.
- Roese, N. J., & Olson, J. M. (1997). Counterfactual thinking: The intersection of affect and func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1-5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alovey, P. (2001). Applied emotional intelligence: Regulating emotions to become healthy, wealthy, and wise. In J. Ciarrochi & J. Forgas (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scientific inquiry* (pp. 168-184).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Sanna, L. J., & Turley, K. J. (1996). Antecedents to spontaneous counterfactual thinking: Effects of expectancy violation and outcome va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2, 906-919.
- Schwarz, N. (1990). Feeling as information: Informa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527-561). New York: Guilford Press.
- Shah, J., Higgins, E. T., & Friedman, R. S. (1998). Performance incentives and means: How regulatory focus influences go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 285-293.
- Sherman, S. J., & McConnell, A. R. (1995). Dysfunctional implications of counterfactual thinking: When alternatives to reality fail us. In N. J. Roese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199-232). Mahwah, NJ: Erlbaum.
- Sternberg, R. J., & Gastel, J. (1989). If dancers ate their shoes: Inductive reasoning with factual and counterfactual premises. *Memory and Cognition*, 17, 1-10.
- Stewart, A. J., & Vandewater, E. A. (1999). "If I had it to do over again...": Midlife review, midcourse corrections, and women's well-being in mid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70-283.
- Taylor, S. E.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67-85.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ells, G. L., & Gavanski, I. (1989). Mental simulation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61-169.
- Wells, G. L., Taylor, B. R., & Turtle, J. W. (1987). The undoing of scenario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21-430.

1 차원고 접수일 : 2002. 9. 14.

수정원고 접수일 : 2002. 11. 1.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11. 6.

Psychological functions and values of counterfactual thinking

Taekyun Hur

Social Science College Hankuk Univeristy of Foreign Studies

Counterfactual thinking refers to a mental simulation of "What might have been," a cognitive process of once-possible-but-unrealized alternatives to facts, Counterfactuals have been reported to produce intensive emotional experiences, specifically regret. The present research reviewed and tried to integrate the previous inconsistent findings in the view of functional value of counterfactuals. Social psychologists proposed that counterfactuals could be categorized into upward(thoughts of better alternatives) versus downward(thoughts of worse alternatives) and additive versus subtractive. Counterfactual processes are more likely to occur following negative or unexpected rather than positive expected outcome, consistent with the minimization-mobilization hypothesis. Downward counterfactuals serve affective functions(to make one feel better) through contrast effects. Upward counterfactuals serve preparative functions(to prepare and improve performance in the future similar tasks) through causal inferences. Also, upward counterfactuals have been demonstrated in several studies to be followed by success-related attitudes and intentions and actual performance improvement. Furthermore, in terms of regulatory focus, downward counterfactuals were related with the prevention focus(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and upward counterfactuals were related with the promotion focus(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Those findings from numerous studies support that counterfactuals are functional to serve human ongoing motives. In conclusion,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of functional value of counterfactual think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terfactuals, regret, functional value, mental simulation